

만3세 버리의 자발적인 노래 만들어 부르기 경험의 교육적 의미 탐색

Exploring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3-Year-Old Byeory's Spontaneous Song-Making and Singing

최별녀* · 김지연** · 박형신***

Byeol Nyeo Choi · Ji Yeon Kim · Hyounghsin Park

초록 이 연구는 만3세 유아의 자발적인 노래 만들어 부르기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5주간 W시에 위치한 T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세 버리의 자발적인 노래 만들어 부르기를 관찰하고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관찰노트, 동영상 촬영, 면담기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Yin(2013)이 제안한 5단계 순환과정에 따른 질적 분석방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버리의 자발적 노래 만들어 부르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맥락에서 발현되었으며, 버리의 음악적 발달을 이끌고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정서적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버리의 자발적인 노래 만들어 부르는 부모와 교사의 환경적 지원을 비롯한 정서적 지지와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는 창의적 요소가 포함된 유아기 초기 자발적인 노래 만들어 부르기의 교육적 가치를 조명하고, 유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음악경험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유아, 자발적 노래 만들기, 자발적 노래 부르기, 자발적 노래 만들어 부르기, 음악적 발달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spontaneous song-making and singing (SSMS) among 3-year-old children. Observations were conducted on the SSMS of a 3-year-old child named Byeory at the T Childcare center in W City over a 15-week period, supplemented by interviews with parents and teachers. Data were gathered through observation notes, video recordings, and interview transcripts, and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analysis method based on the five-step cycle proposed by Yin (2021). Research findings reveal that Byeory's SSMS occurred in various everyday contexts, fostering the music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peer interaction and emotional expression. Furthermore, it was observed that Byeory's SSMS experiences were dynamically shaped and enhanced through emotional support, including environmental support from parents and teachers. In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educational value of early childhood SSMS enriched with creative elements, stressing the importance of attentive and proactive support for spontaneous and creative musical experiences that unfold in daily lives of young children.

Key words: young children, spontaneous song-making, spontaneous singing, spontaneous song-making and singing, musical development

* First author, E-mail: rurrer@hanmail.net

Childcare center Teacher, Tongil Childcare center, 1692, Chiak-ro, Wonju-si, Gangwon-do, Korea

** Co-author, E-mail: freeji@naver.com

Student Researcher (Ph. D. degree course), Gangneung-Wonju Nat'l University, 150, Namwon-ro, Wonju-si, Gangwon-do,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odrihs@gwnu.ac.kr

Professor, Gangneung-Wonju Nat'l University, 150, Namwon-ro, Wonju-si, Gangwon-do, Korea

I. Introduction

최근 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추구하며 개정됨에 따라(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교육과 보육의 현장은 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하여 즐겁게 놀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움이 실현되고 균형 잡힌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아를 위한 음악교육 역시 교사주도의 음악활동보다 유아가 자유로운 놀이 상황에서 소리를 탐색하고 재구성하여 즐기는 과정을 보다 강조하게 되었으며, 유아의 자발적인 음악참여와 주도적인 음악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음악경험은 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여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고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유아는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주변과 소통하는 방법을 습득하며 음악적 성장과 더불어 언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과 함께 창의적인 표현력을 키워나간다. 유아를 위한 음악경험은 소리탐색을 포함한 음악듣기와 노래 부르기, 악기 다루기, 동작으로 표현하기, 음악 만들기를 포괄하며, 이 중 노래 부르는 것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가장 보편적인 음악유형으로 간주되고 있다(Dowling, 1984; Trehub, 2003; Welch, 1994; Yoon, 2018).

유아는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며, 이는 인간발달의 메커니즘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Welch, 2001). 그러나 초창기 노래 부르는 모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경험을 통해서 발달되고, 유아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해나간다(Park, 2023; Gembris, 2002). 연구자들(Davidson, McKernon & Gardner, 1981; Sundin, 1997)은 유아가 노래를 듣고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재현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며, 만3세경이 되면 자발적인 노래의 재현과 함께 자신이 경험한 멜로디와 리듬을 결합한 즉흥적인 노래 만들기를 시도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시기의 유아는 노래에 내포된 음악-언어적 규칙성을 발견하고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장난스럽게 결합하여 초기 버전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되며, 노랫말을 바꾸거나 멜로디와 리듬을 변형하여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등(Marsh & Young, 2016) 자발적인 노래 부르기를 통해 자신의 노래를 반복하고 변화, 발전시켜 나간다(Park, 2023). 따라서 유아의 자발적인 노래 만들어 부르는 것은 멜로디와 노랫말의 시간적 구성에 관한 규칙을 이해하고 구현해내는 창의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Stadler Elmer, 2011).

자발적인 노래 만들어 부르기(SSMS: Spontaneous song-making and singing)는 유아의 자발적인 노래 부르기와 음악(노래) 만들기가 통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음악 만들기가 음악

적 요소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조직하여 음악적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과 그 결과를 의미하므로(Ahn & Kim, 2011; NafME, 2014), SSMS는 자발적으로 자신만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조직하여 독창적인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창의적인 음악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노래 부르기가 유아기에 가장 편안하고 보편적인 음악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Park & Lim, 2019), 음악 만들기의 경우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고 음악적 동기를 부여해주는 창작활동이라는 점에서(Lee & Baek, 2023) SSMS는 유아에게 가장 친숙하고 일상적이면서도 주도적인 음악참여를 통해 음악적 성장을 이끄는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음악경험이라 할 수 있다.

한편, Marsh와 Young (2016)은 관련연구를 종합하여 자유놀이 중에 나타나는 유아의 자발적인 노래 유형을 의사소통의 기능을 내포하며 비교적 짧은 언어적, 음악적 아이디어를 반복하는 찬트와 혼잣말과 같이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흐름을 가진 노래로 구분하였다. 연구자들은 유아의 자발적인 노래 부르기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통합되고(Marsh & Young, 2016) 놀이와 연결된다고 주장하였으며(Young, 2002), 유아의 자발적인 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로 노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이라고 주장하였다(Dean, 2019).

종합하면, 유아의 SSMS는 유아기 주도적인 언어사용과 더불어 인류문화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Trainor, 1996; Trehub, 2003),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스스로 음악적 요소를 조직 및 구성하여 실행에 옮기는 가장 적극적인 음악경험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동기화되어 발전시켜 나가는 놀이와 학습의 과정이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이끌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내면화하는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은 음악경험이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음악교육의 영역에서도 유아의 자발적인 음악참여와 음악 만들기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Burton, 2002; Gluschkof, 2008; Lee & Baek, 2023; Park & Cho, 2013; Suh, Jeong & Lee, 2016; Young, 2003). 또한 자신만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조직하여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경험이 유아의 음악적 성장과 더불어 창의적 사고를 높이고 나아가 전인 발달을 이끌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Ahn & Kim, 2011; Dean, 2019).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음악 만들기와 노래 만들어 부르기에 관한 연구(Kim & Choi, 2017; Lee & Baek, 2023, 2022; Park & Cho, 2013)는 주로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창의적 요소가 포함된 유아기 초기 노래 만들기와 노래 부르기의 양상을 그 의미와 함께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자들(Davidson, McKernon & Gardner, 1981; Sundin, 1997)은 유아가 만3세경 자발적인 노래 부르기와 더불어 노래 만들기를 시도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유아는 일상생활 중에 빈번하게 흥얼거리고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것을 즐기며(Kong & Kim, 2010), 특별히 만2세 이후 말과 노래를 구분하고 즉흥적이며 자기중심적인 말 놀이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Kim & Lee, 2012; McDonald, 1979). 또한 친근한 음정의 레퍼토리를 참조하여 자발적으로 노래를 바꾸어 부르고 이를 반복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Davidson, McKernon & Gardner, 1981; Fox, 2000). 이는 명확히 만3세 유아의 경우 언어적, 음악적 표현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경험한 노래를 재구성하고 조합하여 자신만의 노래를 창작하여 부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아기 SSMS의 의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과 제4차 표준보육과정(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예술경험 영역에는 영유아가 예술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하고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유아의 음악경험 중 SSMS는 발달에 적합하고 가치 있는 음악경험이라 할 수 있으며, 유아의 일상적인 놀이와 함께 통합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유아의 SSMS가 음악적 성장과 창의적 사고를 높이고 전인발달을 이끌 수 있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음악경험이라는 점과, SSMS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발하고 자연스럽게 놀이와 연결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그 교육적 의미와 양상을 깊이 있게 탐색해보는 과정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내에서 유아의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음악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까지 국내에서 만3세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음악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음악경험이 그들의 음악개념 형성(Bang, 2018; Kim & Ahn, 2006; Lee & Kim, 2015)과 음악적성(Han, 2017; Jung & Back, 2018), 음악적 표현력(Hwang & Choi, 2021; Lee & Kim, 2023, 2019; Yun, 2008)을 비롯한 음악능력(Hong & Park, 2014)을 증진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 음악태도(Kim & Yoon, 2019; Kim & Ahn, 2006)와 성향(Lee & Kim, 2015; Han, 2017)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또한 유아의 음악경험이 놀이성(Lee & Kim, 2023, 2019; Hong & Park, 2014)과 사회·정서적 발달(Hwang & Choi, 2021; Kim & Yoon, 2019; Lee & Choi, 2023; Yuk, & Choi, 2012; Yun, 2008)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유아의 음악경험과 발달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창의적 요소가 포함된 유아기 초기 SSMS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3세 유아의 SSMS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즉, 만3세 유아의 SSMS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그러한 음악경험의

교육적 함의가 어떠한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유아의 SSMS에 대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부모 및 교사 역할의 의미를 상호 역동성의 측면에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한편, 유아의 SSMS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변화되며 유아가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상호작용 역시 장기간의 일상적인 관찰을 통해 그 면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자들은 유아의 일상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SSMS를 질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SSMS가 발현되는 만3세 유아의 SSMS의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여 유아의 음악적 경험 안에 내포된 의미를 살펴보고, 부모와 교사 면담을 통해 SSMS와 부모, 교사 역할과의 역동이 어떠한가를 파악해보았다. 본 연구자들은 연구의 결과가 만3세 유아의 SSMS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내에서 유아의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음악경험을 지원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II. Method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는 W시에 위치한 T어린이집의 나래반에 재원 중인 여아로, 2020년 1월 30일에 태어나 생후 43개월인 시점에 부모의 동의하에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자의 이름은 익명성 보장을 위해 ‘버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 ‘버리’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음악활동에 높은 적극성을 보였다. 또한 연령에 맞는 언어능력을 보이고 노래를 쉽게 따라 부르며, 간단한 멜로디를 구별할 수 있다. 리듬감이 느껴지는 동요와 만화 주제를 특히 좋아하며, 손유희와 노래에 맞춘 율동을 즐기는 모습을 보인다.

버리가 재원 중인 T어린이집은 만2세 나래반과 새솔반이 한 공간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각 학급에는 동년도 출생아를 기준으로 편성된 7명의 영유아와 한 명의 담임교사가 배정되어 있다¹⁾. 담임교사들은 놀이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며 자유놀이 상황에서 유아의 흥미와 놀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충분한 관찰을 토대로 한 환경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본 연구자 중 1인은 유아교육현장에서 17년의 실무 경험을 쌓으며 유아의 음악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온 유아교육 전공의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현재 T어

1)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은 동년도 출생아(1.1.~12.31)를 한 학급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2세 학급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7이다(보건복지부, 2023). 연구기간(2023.9.~2023.12.) 중 버리의 실제 연령은 만3세에 해당하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에 의거하여 만2세 학급에 재원 중이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린이집에서 통합 운영되는 만2세 두 학급 중 새솔반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벼리의 SSMS 경험을 직접 참여 관찰하는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공동연구자들은 연구의 주요 목적인 만3세 유아의 자발적인 노래 만들어 부르기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과정에서 문헌고찰과 객관적인 자료분석, 의미부여, 시사점 도출을 위한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세 벼리의 SSMS의 교육적 의미를 질적 분석을 통해 탐구하였다. 따라서 Denzin (1978)의 방법론적 삼각검증(method triangulation)을 활용하여, 관찰과 면담, 동영상 촬영을 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Carter, Bryant-Lukosius, DiCenso, Blythe & Neville, 2014).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앞서 2023년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사전 관찰을 통해 만3세 유아의 노래 만들기, 또는 자발적인 노래 부르기의 양상을 검토하기 위한 초기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위해 유사한 연령대의 두 유아를 선정하여 관찰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23년 9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5주 동안 어린이집에서 매일 8시간씩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일과 중 일어나는 벼리의 SSMS의 장면과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을 관찰 및 기록하였으며, 동영상 촬영과 담임교사 및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새솔반의 담임교사인 연구자 중 1인은 통합 공간에서 생활하는 벼리를 포함한 유아들의 일상적인 활동과 음악적 표현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유아의 SSMS 에피소드를 실시간으로 기록하였다. 한편, 벼리의 가정 내 음악적 표현과 활동, 부모의 음악적 배경과 역할을 파악하기 위한 부모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의 음악환경과 교사의 지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벼리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록 및 녹음한 정보는 유아의 음악적 발달과 어린이집 및 가정의 음악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유아의 SSMS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Yin(2013)이 제시한 5단계 순환과정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는 자료 수집부터 분류, 재배열, 해석 그리고 결론 도출까지의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첫 단계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관찰노트와 동영상 촬영분, 면담자료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중 동영상 촬영은 연구 대상인 유아의 SSMS에 관한 실제 행동과

상호작용의 맥락을 폭넓게 포착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또한 Vrew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동영상 자료를 텍스트 형태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환한 후 유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및 상황맥락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관찰노트의 내용을 반영한 전사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은 분석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탐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방코딩 방법을 활용하여 변환된 텍스트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의미 있는 단위들을 식별하고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유아의 SSMS와 관련된 특징적인 패턴 및 행동을 파악하고 이를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세 번째 단계인 재배열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Notion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유아가 자발적으로 만들어 부른 노래를 악보로 시각화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과정에서 유아의 음악적 표현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네 번째 단계인 해석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깊이 있게 분석하였으며, 유아의 SSMS와 관련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단계인 결론 도출 단계에서는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고려하여 해석에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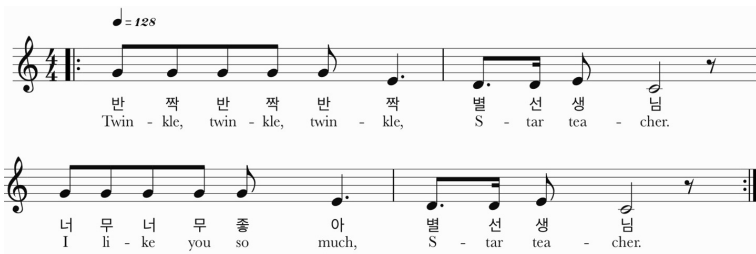
한편, 본 연구에서는 Maxwell (2009)이 제안한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는 전략을 적용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첫 번째 전략으로 삼각검증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찰, 동영상 촬영, 면담 등 다양한 차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에서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15주간의 장기간 관찰을 수행함으로써 유아 버리의 SSMS 현상의 맥락과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기간 관찰은 특히 시간에 따라 변화하거나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유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동료검토를 실시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공동연구자를 비롯한 담임교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기 위한 협력과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가능한 오류나 편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반성적 태도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현장노트를 작성하여 연구 현장에서의 관찰, 면담, 경험 등을 기록하고, 연구자들의 개인적 가정, 태도, 행동이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반성적으로 고민하고 조절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III. Res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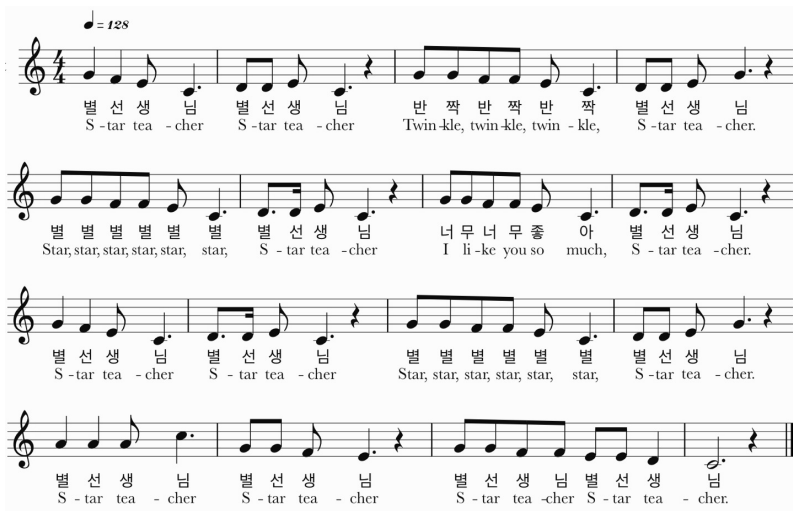
1. 음악적 성장을 위한 변주곡

버리의 SSMS는 음악적 발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이는 자유놀이시간에 처음

으로 교사에게 선보인 버리의 첫 노래인 “별 선생님”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Figure 1]). 버리는 마라카스, 북, 탬버린을 가지고 놀면서 마라카스를 마이크로 사용하며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버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만의 멜로디를 창조하며 음악적 구조와 형식을 내면화하였다. 특히 좋아하는 교사에 대한 가사를 반복하며 멜로디를 변형하는 버리의 모습은 버리의 음악적 성장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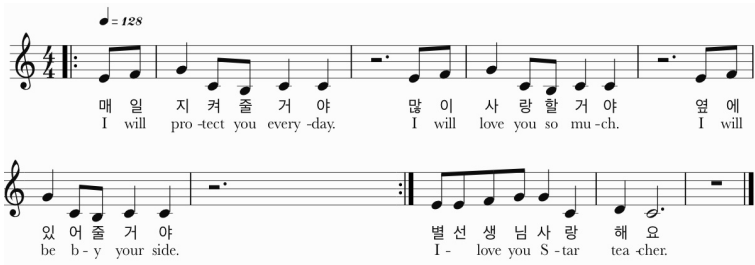
[Figure 1] A Song of Star Teacher by Byeory



[Figure 2] A Song of Star Teacher with variations by Byeory

[Figure 2]는 이러한 과정을 더욱 발전시켜 보여준다. 버리는 기존 “별 선생님” 노래의 멜로디를 복잡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변형시키며 음악적 탐색을 이어간다. 이는 Swanwick(2020)이 설명한 음악발달의 숙달(Mastery), 모방(Imitation), 상상력이 풍부한 놀이(Imaginative Play), 메타인지(Metacognition) 네 단계에서 버리가 초기단계를 넘어서는 징후를 보여준다. 만3세의 버리가 이 시기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숙달과 모방의 단계를

넘어서, 자신의 상상력을 사용하여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과정은 상상력이 풍부한 놀이 단계로의 전환을 나타내며, 음악적 발달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ure 3] A Song of Guarding the Star Teacher by Byeory



[Figure 4] A Song of Guarding the Star Teacher with variations by Byeory

[Figure 3]에서는 버리는 “별 선생님” 노래를 기반으로 하여 “별 선생님 지켜주는 노래”라는 새로운 노래를 발전시켰다. 이 노래는 버리의 음악적 구조와 패턴에 대한 인식과 이해능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형은 버리의 SSMS가 친근한 음정을 참조하여 만들어 부르던 초기 버전으로부터 노랫말, 멜로디, 리듬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Marsh & Young, 2016; Park, 2023). 또한 Hargreaves (1986)가 설명한 음악적 발달의 감각운동 단계에서 형상적 단계로의 진화를 반영한다. 이와 더불어 [Figure 4]에서는 버리가 “별 선생님 지켜주는 노래”의 멜로디를 더욱 발전시켜 음의 변형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버리는 기존의 멜로디와 리듬을 복잡하고 창의적으로 변형시키면서 자신만의 음악적 자기 정체성(self-identity)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버리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창의적인 멜로디를 창작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음악적 발달의 다양한 단계를 아우르는 복잡성과 높은 수준으로의 발전을 드러낸다.

2. 노래의 파동: 상호작용의 전주곡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환경에서 발생하는 버리의 SSMS가 어떻게 다른 유아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유아들 간의 감정 공유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지에 주목하였다.

버리: 반짝 반짝 반짝 별 선생님~ 너무 너무 좋아 별 선생님~

하윤: (로아와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우리도 “별 선생님” 노래 부를까?

로아: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래 좋아.

하윤: (자신감 넘치며) 내가 더 잘 부를 수 있어.

로아: (경쟁하듯) 내가 더 잘 불러. 나는 더 크게 부를 수 있거든.

하윤: (다른 친구들을 가리키며) 우리 같이 부르면 더 크게 될 걸?

로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면 선생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하윤: (흥분하며) 내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좋아하지.

버리: 같이 불러보자.

로아 · 하윤: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좋아. 반짝 반짝 반짝 별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 별 선생님.

(2023. 10. 27. 점심시간)

버리가 “별 선생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하윤이와 로아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공감과 흥미를 눈빛으로 나누었다. 이는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유아들 사이에 즉각적인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보여주었다. 하윤이가 “우리도 별 선생님 노래 부를까?”라는 제안은 로아의 긍정적인 반응, 즉 머리를 끄덕이고 몸짓으로 화답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 사이의 경쟁적 대화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장난기 어린 눈빛과 표정은 경쟁보다는 함께 놀이를 즐기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하윤이가 “우리 같이 부르면 더 크게 될 걸?”이라고 말하자 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하였고, 순간 두 유아는 몸짓으로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때 모든 유아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바라보고 웃음을 공유하였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유아들 사이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켰다.

또한 버리의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음악경험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버리가 점심 식사 중에 “선생님, 이것 보세요. 저 잘 먹지요?”라고 말하며 노래를 부른 사례는 버리의 음악적 표현이 다른 유아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는지 보여준다. 버리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노래를 부르며 눈빛은 다른 유아들에게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에 다은이도 “별 선생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다은이가 노래를 시작하자 현민이도 관심을 보이며 노래를 따라 부른다. 현민이의 눈은 다은이에게 집중

되어 있었으며 다시 노래를 시작할 때 현민이의 행동에서 음악적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음악경험이 유아들 사이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의 경험을 넘어 서로의 눈빛, 표정, 그리고 몸짓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벼 리: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저 잘 먹지요?

연구자: 우리 벼리는 나물도 너무 잘 먹는걸요?

벼 리: 저는 노래도 잘 불러요.

다 은: (자신감 있게) 선생님, 나도 “별 선생님”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연구자: 벼리가 부른 “별 선생님” 노래 말하는 거예요?

다 은: 네. 잘 들어보세요.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기 시작한다)

현 민: (다은이를 바라보며 노래를 따라 부른다) 반짝 반짝 반짝 별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 별 선생님.

연구자: “별 선생님” 노래를 왜 부르는 거예요?

다 은: 벼리가 부르는 노래인데 저도 “별 선생님” 사랑하니까요.

하 은: 벼리는 밥도 잘 먹고, 노래도 잘 불러. 예쁘고.

벼 리: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나는 노래 잘 불러. 반짝 반짝 반짝 별 선생님~

현 민: (웃으면서) 반짝 반짝 반짝 별 선생님~ 너무 너무 좋아 별 선생님

(2023. 11. 12. 자유놀이시간)

이러한 음악적 상호작용은 유아들 사이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몸짓, 표정을 통한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한 감정의 공유와 사회적 관계 형성의 과정을 보여준다. 벼리는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또래들과의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음악을 활용하였다. 이는 음악의 의사소통으로써의 유기적 기능(Glick, 1992)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비롯한 협력의 장으로써의 역할(Buren, Dege & Schwarzer, 2021; Marsh, 2008)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벼리의 SSMS는 단순히 개인적인 창조의 결과가 아니라 어린이집 공동체 내에서 음악경험을 나누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음악적 상호작용은 유아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감정 공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감정과 정서적 표현의 멜로디

벼리의 SSMS는 개인적인 취향과 정서적 상태를 반영한다. 각기 다른 감정 상태에 따라 선택하는 노래의 종류를 통해 벼리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기쁠 때는 밝고 리듬감 있는 노래를, 슬플 때는 느린 멜로디를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감정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였다. 이는 유아의 감정 인식 및 조절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연구자: 벼리가 스스로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만들 때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엄 마: 벼리는 종종 혼자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우리에게 들려줘요. 우리의 칭찬과 격려에 힘입어 더 열심히 노래를 부르려고 해요. 벼리가 만든 노래는 간단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이의 창의성을 지지해요. 가끔은 갑자기 노래를 만들어 부를 때도 있는데, 그럴 땐 가사에 집중해서 듣고 노래가 끝나면 얼마나 잘했는지 칭찬해줘요. 최근에는 벼리가 “엄마, 내가 노래 불러줄까?”라고 묻곤 해요. 그럴 땐 “그래, 불러줘! 엄마는 벼리 노래가 좋아!”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듣고 나면 박수를 쳐주며 칭찬해줘요.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주죠. 엄마가 “벼리, 노래 듣고 싶어. 노래 좀 들려줘!”라고 요청하면 벼리는 기꺼이 노래를 들려줘요. 그리고 얼마 전 외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할머니 사랑해요. 힘내세요.”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러줬는데, 너무 슬프고 감동 받았어요. 이 노래를 동영상으로 찍어 외할머니께 보내드렸더니 외할머니가 큰 감동을 받으시며 우시더라고요.

(2023. 12. 7. 부모면담)

부모와의 면담에서 벼리의 엄마는 벼리가 종종 혼자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가족에게 들려준다고 언급하였다. 벼리의 노래 만들어 부르기는 간단하지만, 가족은 이를 소중하게 여기며 벼리의 창의성을 지지하였다. 벼리가 만든 노래는 벼리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부모의 격려와 긍정적인 피드백은 벼리의 음악적 자신감과 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자신의 삶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통해 자발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기도 한다(Suh, Jeong & Lee, 2016).

연구자: 벼리야,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니?

벼 리: 별 선생님 지켜주는 노래야.

연구자: 별 선생님 지켜주는 노래예요? 전에는 사랑한다는 노래였는데?

벼 리: 이번에는 지켜주는 노래를 부를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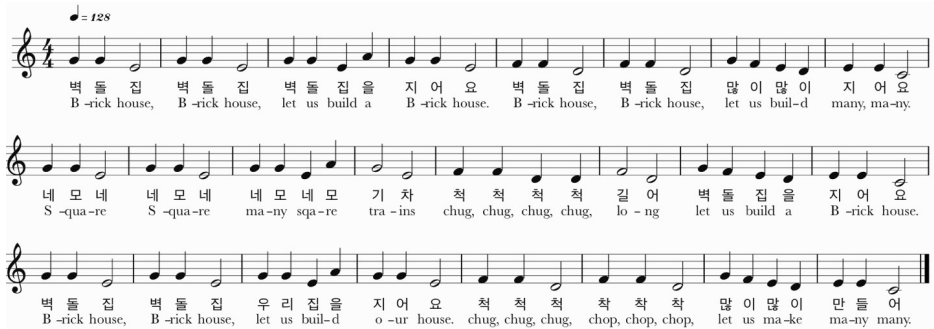
연구자: 선생님을 왜 지켜주는 거예요?

벼 리: 별 선생님 좋아서. 지켜주고 싶어서.

(2023. 12. 9. 자유놀이시간)

[Figure 3]과 관련된 사례에서는 벼리가 만든 “별 선생님 지켜주는 노래”가 벼리의 감정과 사고가 어떻게 음악적 표현으로 발전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교사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감정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는 방식이다. “옆에 있어 줄 거야”, “매일 지켜 줄 거야”, “사랑해요.”와 같은 가사는 벼리가

선생님에 대해 느끼는 깊은 애정과 보호의 욕구를 반영한다. 노래의 반복적인 구조와 간단한 멜로디는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의 발전을 나타내며, 버리의 음악적 성장과 자기표현 능력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Figure 5] A Song Sung while Playing "Build a Brick House" by Byeory

버리의 SSMS는 자발성, 몰입,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인지적 발달이라는 음악경험의 다양한 특징들을 포함한다(Lee & Lee, 2020). [Figure 5]에서 버리는 자유놀이시간에 또래와 함께 벽돌블록을 이용해 집을 지어나가는 과정을 노래로 표현하였다. 이는 단순한 놀이나 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자신의 경험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확장된다. 노랫말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구조는 ‘네모 네모’와 같은 구절을 통해 물체의 형태와 구조에 대한 인식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며, ‘척척척 착착착’과 같은 의성어는 건축 과정의 소리를 구현한다. 또한 ‘우리 집을 지어요.’라는 구절은 버리가 자신이 만든 공간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나타낸다. 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버리는 기쁨과 창의성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동시에 버리의 상호작용은 또래들과의 놀이를 촉진하며, 사회적인 기술과 협력적 태도를 강화한다. 또한 노래를 만들며 공간적 인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갔다. 이러한 버리의 SSMS는 놀이와 음악적 경험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유아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버 리: 뛰어! 칙칙칙칙 달려가요~ 달려! 달려! 칙칙칙칙 달려가요~ (반복해서 부른다)

연구자: 버리야, 어떤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버 리: 경찰아저씨 노래.

연구자: 경찰아저씨 노래를 왜 부르고 있었어요?

버 리: 경찰아저씨가 좋아서~ (빨간색 공을 들면서) 빨간색! 초콜렛 공!

(2023. 9. 14. 바깥놀이)

벼 리: (클레이를 만들면서 노래를 부른다) 클레이~ 좋아요. 클레이 좋아요. 클레이
좋아요 클레이 좋아요~ 햄버거 같다. 남남남. 다 먹었다. 다 먹었어요? 선생님
도 햄버거 좋아해요?

연구자: 네~ 좋아해요. 햄버거 만들어 주세요.

벼 리: 네~ 만들어 줄게요. (노래 부르며) 햄버거 좋아요. 햄버거 좋아요.

(2023. 10. 19. 자유놀이시간)



[Figure 6] A Song Sung while Playing with Clay by Byeory

위 사례들은 벼리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음악을 통해 탐색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벼리가 자신만의 새로운 노래를 창작하는 과정은 Shuter-Dyson과 Gabriel (1981)이 규정한 음악적 창의성, 특히 표현적 창의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벼리는 경험한 음악적 자극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개성과 감정을 음악적 형식으로 새롭게 표현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SSMS는 음악적 발달 과정에서 개인의 상상력과 창조성을 발휘하는 중요한 단계로, 벼리의 경우에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 개인의 독창적인 표현으로의 진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Shuter-Dyson과 Gabriel (1981)이 강조한 표현적 창의성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4. 음악적 발달을 위한 역동의 양상별

벼리의 음악적 성장에 있어 가정과 어린이집 환경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와 교사의 지원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벼리의 음악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기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연구자: 벼리가 가정에서 음악을 자주 듣거나 연주를 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아 빠: 엄마 아빠는 음악을 자주 듣거나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벼리가 어린 시절 호비 DVD 영상을 많이 시청했고 현재는 어린이 만화채널에서 나오는 음악을 많이 감상합니다. 또한 간단한 장난감 악기를 가지고 놀거나 이외에도 도레미곰, 창작 동화책을 통해 음악과 내용을 결합한 경험이 있습니다.

엄 마: 간단한 장난감 악기(마라카스, 리코더, 나팔, 오카리나, 실로폰, 장난감 피아노)가 있는데 가끔 가지고 놀곤 해요. 아! 그리고 버리가 돌 즈음에 프뢰벨말하기 책을 구입해서 음원을 많이 들려줬었어요. 책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거였는데, 어른인 제가 들어도 재미있고 신이 났어요. 이 책을 읽어 줄 때는 그냥 읽어주지 않고 노래로 불러서 읽어줬었어요. 그리고 그냥 동요처럼 많이 들었네요. 이후에 동화책 내용을 노래로 들을 수 있는 책을 많이 사서 읽었네요. 도레미곰, 라라랜드 창작동화책이요. 세이펜 찍으면 책 내용이 노래로 나오는데 제가 이런 책들 영향 때문인지 언제부턴가 책을 읽어줄 때 책 내용에 음을 붙여서 노래처럼 책을 읽어줬던 것 같네요. 특히 버리가 자주 찾는 책들은요.

아 빠: 버리한테 엄마 아빠 중 누구한테 책 읽어달라고 할 거냐고 물어보면 아빠는 재미없다며 꼭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해요.

연구자: 이유가 뭐지요?

아 빠: 아빠는 너무 재미없게 책을 읽는데, 엄마는 노래를 부르면서 읽어주니 재미있나 봐요.

(2023. 12. 7. 부모면담)

부모면담을 통해, 버리는 가정에서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경험에 노출되어 왔다. 버리의 부모는 장난감 악기를 포함한 다양한 음악경험을 제공하고, 동화책을 노래로 읽어주는 등의 방식으로 버리의 음악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버리의 언어능력과 음악적 이해를 동시에 발달시키며, 감정적 표현력과 자기표현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연구자: 부모님은 버리의 음악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빠: 저희는 음악경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음악경험이 우리 버리의 감정과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연구자: 버리가 음악에 관심을 보일 때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 빠: 우리 버리가 노래를 부르거나 장난감 악기를 연주할 때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엄 마: 아이가 음악에 관심을 보일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악기를 사주고 배우게 하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연구자: 버리가 음악적인 행동을 보일 때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시나요?

엄 마: 가족 모두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춤을 추곤 해요.

(2023. 12. 7. 부모면담)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환경은 버리의 음악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활동은 버리가 자발적으로 음악을 탐색하고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부모의 긍정적인 반응과 지원은 버리가 음악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감정을 표현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버리를 통해 가족 모두가 음악에 참여하게 되어 지원자로서 뿐만 아니라 참여자로서 버리의 음악경험에 동참하여 음악적으로 소통하고 정서적으로 보다 결속되는 경험을 하였다.

연구자: 어린이집 환경에서 버리의 음악적 창의성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나 자료를 제공하고 있나요?

담임교사: 버리의 음악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종류의 악기를 통해 유아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탐색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마라카스, 드럼, 북, 탬버린, 핸드벨, 셰이커, 우드블록과 같은 간단한 악기들이 있고, 아이들은 자유롭게 사용하며 다양한 소리와 리듬을 탐색합니다.

연구자: 교사로서 버리의 음악경험에 어떻게 개입하거나 지원하고 있나요?

담임교사: 저는 버리가 음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합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연주하며 버리가 특정 리듬이나 멜로디를 탐색할 때, 버리의 창의성을 보고 칭찬하며 더 많은 음악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요. 또한,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며, 이를 통해 버리가 음악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과 움직임을 결합한 신체활동이나 노래 부르기, 악기 다루기 등입니다. ... 버리가 놀이 중에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버리의 흥미를 파악할 수도 있고, 버리의 노래가 놀이를 더 촉진하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듣고 관찰하며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자: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음악적 자료가 버리의 음악 만듦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담임교사: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음악적 자료는 버리가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버리는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곤 해요. 예를 들면, 버리는 자신만의 멜로디를 만들거나, 마라카스로 리듬을 탐색하는 등 자유롭게 음악을 탐색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버리의 음악적 창의성이 발달되고, 자기표현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 11. 22. 교사면담)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어린이집 환경이 버리의 음악적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악경험과 자료는 버리가 음악적 요소를 탐색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악기를 통해 버리는 다양한 소리와 리듬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었으며, 이는 버리의 음악적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또한 교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는 버리가 음악경험에 몰입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교사는 버리가

악기를 연주하는 동안 탐색하는 특정 리듬이나 멜로디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버리의 자신감을 높이고, 창의적인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 동작표현과 노래 만들기, 악기 다루기 등 다양한 음악경험을 통해 버리의 음악적 기술과 자기표현 능력을 발달시켜 나갔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문화적 맥락으로써 어린이집 환경과 교사의 역할이 유아의 음악적 창의성을 촉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Niland (2009)는 어린 시절의 음악경험이 이후 전인발달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강조한 바 있다. Niland (2009)는 단순히 재능 키우기 넘어서, 유아가 음악을 통해 세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전체적인 접근 방식의 일부로서 음악경험을 강조하였다. 또 유아가 타고난 음악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음악적으로 풍부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적 환경은 유아에게 다양한 음악적 자극을 제공하고,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본 연구에서도 버리는 다양한 악기와 음악경험을 통해 음악적 요소와 음악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를 탐색할 수 있었으며, 이는 버리의 음악적 감각뿐만 아니라 감정적, 사회적, 인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버리의 사례를 통해, 부모와 교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풍부한 음악적 자료의 제공이 유아의 음악적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버리의 적극적인 음악참여는 부모와 교사의 음악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지지자로서의 역할에서 놀이동반자로서의 역할로 전환을 이끌었다. 이는 유아의 SSMS가 일방적으로 부모와 교사로부터 지원과 지지를 받아 발전해나가지 않고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감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IV. Discussion & Conclusion

본 연구는 만3세 유아 버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SSMS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총 15주에 걸쳐 진행한 관찰과 부모 및 교사 면담의 결과를 종합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버리의 SSMS는 음악적 발달을 이끄는 음악경험으로써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버리의 SSMS는 자유놀이시간에 처음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의 다양한 맥락에서 발현되었다. 버리는 친숙한 멜로디를 자신의 생각과 느낌, 놀이의 에피소드와 연결 지어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창조하고, 음악적 구조와 형식을 변형해나갔다. 이는 버리가 Swanwick (2020)이 구분한 음악발달의 네 단계 중 숙달과 모방과 같은 초기 단계를 넘어서 상상력을 사용하여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놀이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또 버리가 멜로디와 노랫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를 변형하

고 확장하는 모습은 음악-언어적 규칙성을 이해하고(Marsh & Young, 2016), 이들 간의 시간적 구성에 관한 규칙을 창의적으로 구현해 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Stadler Elmer, 2011). 버리의 능력은 Hargreaves (1986)가 제시한 음악적 발달단계 중 감각운동 단계에서 시작하여 점차 형상적 단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버리가 자신의 노래를 만들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음악의 구조를 이해하고 상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버리의 SSMS는 유아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끄는 단초로써 교육적 의미가 있다. 버리가 창작한 초기 노래는 자신이 좋아하는 별 선생님을 주제로 한 노래로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또래의 초기 SSMS를 이끄는 모델로서 비계를 제공하였다. 유아들은 버리가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모방하기도 하고 함께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버리의 자발적인 노래는 또래와의 놀이와 통합되었고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었으며, 사회적 결속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Buren, Dege & Schwarzer, 2021; Peretz, 2006). 즉, 버리의 SSMS가 사회적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사를 포함한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버리의 SSMS가 상호작용과 통합의 공통 언어의 역할을 하며(Glick, 1992),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내에서 음악적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셋째, 버리의 SSMS는 개인적인 감정과 정서적 상태를 반영하고 표출하는 통로로써 교육적 의미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버리는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노래를 선택하고 표현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기쁠 때나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리듬이 빠른 노래를 만들었으며, 슬프거나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상황에서는 느리고 잔잔한 멜로디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유아의 음악을 통한 감정 표현 및 조절능력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결과이다. 한편, 버리는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와 외할머니에 대한 사랑, 걱정을 노래로 만들어 표현하며 어머니로부터 감정적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음악이 유아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임을 보여주며, 유아의 SSMS가 정서적 표현임과 동시에 타인에게 정서적 전달(emotional contagion) (Lim & Park, 2021; Peretz, 2006; Tsang, Friendly & Trainor, 2011)을 일으키는 통로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노래 주제를 자신이 좋아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옆에 있어 줄 거야”, “매일 지켜 줄 거야”, “사랑해요”와 같은 가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교사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는 유아가 자신의 삶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통해 자발적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서영민, 정지혜, 이순형(Suh, Jeong & Lee, 2016)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버리의 SSMS 과정은 버리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버리의 SSMS는 부모와 교사의 환경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발전하며 그들의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동적인 관계로써 교육적 의미가 있다. 먼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악경험과 자료는 버리가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탐색하고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양하게 제시된 악기의 소리를 탐색하고 악기들의 소리를 조율하여 리듬을 만들어 내는 과정은 버리의 음악적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또한, 환경적 지원과 함께 이루어진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격려는 버리가 음악경험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인 음악 행위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린 시절의 음악경험은 단순히 재능을 키우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음악적 방식으로 세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전체적인 접근 방식의 일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Niland, 2009), 유아가 타고난 음악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풍부한 음악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때때로 유아는 성인의 “관찰” 안에서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음악놀이를 확장해나가고, 간섭과 지시적인 개입 보다 유아 스스로 반응적이고 지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성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음악놀이를 발전시켜 나간다(Young, 2003). 따라서 버리의 SSMS는 자신의 음악경험을 확장해나가기 위한 과정이자 교사의 관심과 관찰,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환경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는 버리의 인지적 발달과 자기표현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엄마의 노래로 동화를 읽어주는 행위는 버리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음악적 호기심과 창의력을 증진하게 하며 음악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동화의 내용을 노랫말로 듣고 즐기는 과정은 동화의 주제와 소재를 깊이 있게 탐색하고 가락과 리듬 등의 음악적 요소를 경험하게 하였다. 또 다양한 단어를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리듬과 멜로디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변형하는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버리의 음악적 발달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관련 연구자들(Marsh & Young, 2016)은 부모와 유아 간의 자발적이고 유희적인 음악의 교류가 둘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유아의 음악적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와 놀이동반자로서의 역할전환은 버리의 음악적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음악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버리의 SSMS가 일반적으로 부모와 교사로부터 지원과 지지를 받아 발전해나가지 않고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부모, 교사와 버리 간의 음악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버리는 성인의 자극에 반응하고 수용하는 수용자일 뿐만 아니라 성인의 음악적 지원을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역동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벼리의 SSMS는 그와 같은 음악적 상호작용의 산물로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벼리의 SSMS는 어린이집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었으며, 자신만의 멜로디와 노랫말을 창작하고 부르는 과정을 반복하며, 음악의 구조와 형태가 점차 확장되고 정교화 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의 음악적 발달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지 않고,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음악적 행위에 대해 민감한 관심을 갖고, 음악경험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벼리의 SSMS는 자신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으며, 그 음악적 행위를 통해 또래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적립되고 주변인들과의 상호 교류적 관계 맺음이 풍성해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교사는 음악경험이 유아의 감정을 표현하고 주변인들과 상호 교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가능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음악적 탐색과 표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음악적으로 풍부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의 자유롭고 비형식적인 음악적 행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정서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아의 음악적 환경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유아의 관심에 귀 기울이고 유아의 음악적 관심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유아의 음악적 관심사를 부모에게 적절하게 전달함으로써 부모가 유아의 발달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류를 이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만3세 벼리의 SSMS에 대한 면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창의적 요소가 포함된 유아의 초기 SSMS의 교육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가운데 유아의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음악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가 어떠한 관점을 견지해야 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과정에서는 특정 유아를 중심으로 한 음악경험의 의미가 관찰되었으므로, 주변 유아들의 음악적 경험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음악적 창작 경험을 공유하는 유아들의 개별적인 의미와 상호관계적인 의미를 면밀히 탐색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유아의 SSMS에 대한 의미에 더 깊이 접근하기 위해 음악적 표현 외 SSMS와 관련된 다양한 표상의 결과를 보다 폭넓게 탐색하고, 부모와 교사의 관찰기록 등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의미를 도출해낼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Ahn, K., & Kim, S. (2011). The effects of creative music making connected cooking activities based on picture book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0(3), 85-107.

- Bang, E. (2018). Exploration of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music concept of three-year-old young children's during articulated music-body activiti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22(4), 537-565.
- Buren, V., Degé, F., & Schwarzer, G. (2021). Active music making facilitates prosocial behaviour in 18-month-old children. *Musicae Scientiae*, 25(4), 449-464.
- Burton, S. (2002). An exploration of preschool children's spontaneous songs and chants. *Visions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 7-16.
- Carter, N., Bryant-Lukosius, D., DiCenso, A., Blythe, J., & Neville, A. (2014). The use of triangulation in qualitative research. *Oncology Nursing Forum*, 41(5), 545-547.
- Davidson, L., McKernon, P., & Gardner, H. (1981). The acquisition of song: A developmental approach. In Choate, R. A. (Ed.), *Documentary report of the ann arbor symposium on the applications of psychology to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music* (pp. 301-315). Reston, VA: MENC.
- Dean, B. (2019). Spontaneous singing and musical agency in the everyday home lives of three- and four-year-old children. *Research Studies in Music Education*, 43(3), 434-450.
- Denzin, N. (1978).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New York: McGraw-Hill.
- Dowling, W. (1984). Development of musical schemata in children's spontaneous singing. *Advances in Psychology*, 19, 145-163.
- Fox, D. (2000). Music and the baby's brain: Early experiences. *Music Educators Journal*, 87(2), 23-27.
- Gembris, H. (2002). The development of musical abilities. In Colwell, R., & Richardson, C. (Eds.), *The new handbook of research o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pp. 487-50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lick, J. (1992). Werner's relevance for contemporary developmental psychology.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558-565.
- Gluschkof, C. (2008). Musical expressions in kindergarten: An inter-cultural study?. *Contemporary Issues in Early Childhood*, 9(4), 317-327.
- Han, A. (2017). The effects of musical concept based music activities on the musical aptitude and musical character of three-year-old children.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2(3), 47-74.
- Hargreaves, D. J. (1986).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music education. *Psychology of Music*, 14(2), 83-96.
- Hong, S., & Park, H. (2014). Effects of musical play activities with playing an instrument

- on musical ability and playfulness in 3-year-old childre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1(4), 223-243.
- Hwang, M., & Choi, I. (2021). The effects of musical play using fairy tales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musical expression ability for three-years-old children.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32(4), 129-145.
- Jung, Y., & Baek, J. (2018). The effects of music representation activities with movements on musical aptitude and creative body expressivenes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10(2), 95-118.
- Kim, H., & Lee, Y. (2012). Inquiry of toddlers' spontaneous singing.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7(5), 209-244.
- Kim, J., & Choi, Y. (2017). Action research on music making activity with 5-year-old childre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19(3), 43-60.
- Kim, S., & Ahn, G. (2006)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music activity related to the learning cycle and play, and the effect on young children's musical concept and musical attitud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7(3), 189-213.
- Kim, S., & Yoon, J. (2019). Effects of activities singing new songs centering around musical elements on children's musical attitude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7(4), 221-240.
- Kong, M., & Kim, Y. (2010). A research on the teachers' perception and practice on music activities in infants care cent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5(5), 143-165.
- Lee, B., & Baek, J. (2022). Exploring the meaning of becoming a subject in children's music mak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6(4), 275-297.
- _____ (2023). Creation and variation of ritornello through children's music mak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7(3), 129-152.
- Lee, J., & Choi, I. (2023). Effects of nanta activities on socio-emotional competence of preschool children at child care cent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27(3), 183-208.
- Lee, J., & Kim, K. (2015). The effects of comprehensive music education activities using created children's songs on musicianship.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 697-721.
- Lee, K., & Kim, J. (2019). The effects of jangdan storytelling play on children's expressive musical capabilities, expressive language abilities, and playfuln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3(4), 183-207.

- _____ (2023). The effects of play-centered activities utilizing original children's songs on the musical expression abilities and playfulness of three-year-old childre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3(19), 331-347.
- Lee, Y., & Lee, S. (2020). Infants' spontaneous musical behavior on the basis of Sol-EY framework. *Asia 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14(1), 1-22.
- Lim, H., & Park, H. (2021). A study on the direction of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based on the essence of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2), 153-168.
- Marsh, K. (2008). *The musical playground: Global tradition and change in children's songs and gam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rsh, K., & Young, S. (2016). Musical play. In McPherson, G. (Ed.), *The child as musician: A handbook of musical development* (2nd ed., pp. 462-48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xwell, J. A. (2009). Designing a qualitative study. In Bickman, L. & Rog, D. (Eds.), *The SAGE handbook of applied social research methods* (pp. 214-253).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cdonald, D. (1979). *Music in our lives: The early years*.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2019 revised muri curriculum*. Sejong: Author.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4th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Sejong: Author.
- _____ (2023). *2023 Guidelines for Childcare Services*. Sejong: Author.
- NAfME. (2014). *National executive board codified policies*. Reston, VA: MENC.
- Niland, A. (2009). The power of musical play: The value of play-based, child-centered curriculum in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General Music Today*, 23(1), 17-21.
- Park, H. (2023). The practices of kindergarten teachers teaching singing based on their perception of singing ability and teaching beliefs. *Research in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1(2), 13-28.
- Park, H., & Cho, E. (2013). The effects of creative singing activities based on form of folk song on young children's musical creativity and preference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8(5), 109-131.
- Park, H., & Lim, H. (2019). The child care teachers' singing teaching practices based on their singing teaching beliefs.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7(1), 139-152.
- Peretz, I. (2006). The nature of music from a biological perspective. *Cognition*, 100(1), 1-32.

- Shuter-Dyson, R., & Gabriel, C. (1981). *The psychology of musical ability* (2nd ed.). New York: Methuen.
- Stadler Elmer, S. (2011). Structural aspects of early song singing. In Baldassare, A. (Ed.), *Music · space · chord · image. Festschrift for Dorothea Baumann's 65th birthday* (pp. 765-782). Bern: Peter Lang Verlag.
- Suh, Y., Jeong, J., & Lee, S. (2016). The spontaneous music expression of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0(6), 335-364.
- Sundin, B. (1997). Musical creativity in childhood: A research project in retrospect. *Research Studies in Music Education*, 9, 48-57.
- Swanwick, K. (2020). Reflections on the sequence of musical development.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39, 44-50.
- Trainor, L. (1996). Infant preferences for infant-directed versus noninfant-directed playsongs and lullabi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9, 89-92.
- Trehub, S. (2003). Musical predispositions in infancy: An update. In Peretz, I., & Zatorre, R. (Eds.),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music* (pp. 3-2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sang, C., Friendly, R., & Trainor, L. (2011). Singing development as a sensorimotor interaction problem. *Psychomusicology: Music, Mind & Brain*, 21(1-2), 31-44.
- Welch, G. F. (1994). The assessment of singing. *Psychology of Music*, 22(1), 3-19.
- Welch, G. F. (2001). The importance of singing. *Five to singing*, 1(6), 35-37.
- Yin, R. (201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Authors.
- Yoon, J. (2018). The effect of singing activity based on the rhythm element on a preschool child's musical interest and self-regulation abilit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3), 97-119.
- Young, S. (2002). Young children's spontaneous vocalizations in free-play: Observations of two-to three-year-olds in a day-care setting.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52, 43-53.
- Young, S. (2003). Time-space structuring in spontaneous play on educational percussion instruments among three- and four-year-olds.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20(1), 45-59.
- Yun, E. (2008). The effects of audie music activities on three years kindergarten children's music expression ability and emotion intelligenc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2(5), 229-248.
- Yuk, G., & Choi, K. (2012). Effects of integrative music appreciation activities using multimedia on young children's musical intellig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Children's Media & Education*, 11(2), 19-44.